

한일원자력(주)

- 방사선관리 전문용역업체 -

이번호에는 본사를 동작구 상도동에 둔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기술용역업체인 한일원자력(주)를 탐방하였다.

이 회사는 1980년 8월에 설립된 이래 10여년간 사업의 역점을 방사선과 관련된 모든 분야, 특히 방사선의 안전관리분야에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진료에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지 70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의학 및 산업등 거의 모든분야에 걸쳐 문명의 이기로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이용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선 장해라는 소망스럽지 못한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이회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회사를 대표하는 정명조회장은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증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증 소지자로서 30여년간을 행정부와 산업계에 투신한 경력의 기술인으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빈틈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회사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필름뱃지를 이용한 개인외부피폭선량측정업무를 통해 “방사선장해방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고 개인외부피폭선량측정을 위하여 근래에 개발되어 선진외국에서는 널리 보급 이용되고 있는 열형 광선량계(TLD)를 도입, 금년 8월부터 필름뱃지와 병행하여 개인외부피폭선량측정을 할 예정으로, 이미 기자재의 선정이 끝나고 발주단계에 있었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였을 경

우에는 필름뱃지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10mR 이하의 측정도 가능하며 잠상퇴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정확하고 양질의 개인피폭선량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라 한다. 소규모의 회사가 자금면에서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도 고가의 TLD System을 도입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회사 임직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 이회사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체로서 Level Gauge, Thickness Gauge를 비롯한 방사선원을 이용한 공업용계측기의 수입, 판매, 설치 및 교정업무와 방사선원을 이용한 기존의 공업용계측기의 선원교체업무도 수행하고 있었고 동사는 방사관계의 기자재 개발의 일환으로 용광로용의 Level Gauge를 1990년에 개발하여 제철공장의 용광로에 설치하여 그 기능을 인정받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다른용도의 Level Gauge와 Survey Meter의 개발과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사업도 계획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방사선사용시설의 설계, 시공도 수행하고 있었다. 또, 경상남도 고리에 사업소(인원 : 약80명)를 두고 전국의 각 원자력발전소에설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보수검사기간중에 방사선보건물리(Health Physics)요원을 투입하여 보수검사에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피폭문제등의 방사선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력이나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전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우리나라 방사선장해방어기술의 선두주자답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회사가 그 어느회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러한 궁지와 자부심을 전 임직원이 갖고 있는 한 이회사의 발전은 약속될 것이다 생각한다.